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물관리 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장수=송민섭 기자 | 승인 2025.10.21 15:13

기우위기 대응과 스마트 물관리 강화 방안 논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원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양희)는 21일 지사 대회의실에서 장수군, 진안군, 무주군 관내 운영대의원 11명과 지사 물관리 관계자 등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운영대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사 주요 현안과 2025년도 중점 추진 업무를 공유하고, 지역 농어촌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한 수자원 관리강화와 AI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관리 실현 등 공사의 중점 추진 과제가 집중 논의 됐다.

무진장지사 물관리 중점 추진업무는 ▲ 급수예보 서비스 개선 ▲ 농경지 침수방지 제도 개선 ▲ 사전 예방적 시설물관리 강화 ▲ 홍수기 저수지 수위관리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력 향상 ▲ AI기반 스마트 물관리 실현 ▲ 농어촌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 등 7대 과제를 손혁준 수자원관리부장이 보고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농어촌 현장의 문제는 지자체와 공사, 주민이 함께 풀어야 한다며 상생 협력의 중요성과, 농어민과 함께 농어촌을 위해 라른 슬로건 아래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양희 지사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물관리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운영대의원 여러분과 협력해 농어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송민섭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수=송민섭 기자